선학원, 새 비구 비구니 18명 수계

28일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 독자 행보 가속화

부산 금정사서 교육 진행
새로 제작한 가사도 지급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이 수계식을 열고 18명의 승려를 배출했다. 독자적인 계단 설치와 수계식으로 봉행함에 따라 계 과 완전한 결별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선학원은 4월 27~28일 부산 금정사 금강계단에서 구 계 수계산림을 회향했다. 이 자리에서 새로이 탄생한 비구 15명, 비구니 3명에게 각각 수계증을 수여하고 9 가사를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된 9 가사는 선학원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선학원 문장(심볼마크)이 새겨져 있다.

회향식에 앞서 이사장 법진 스님은 선학원사에 대해 강의했으며, 이어 재단법인 선학원 구 계 수계산림 계단위원회(전계사 철오)는 오전 9시 비구 수계식을, 별소계단에서 비구니 수계식을 각각 엄수했다. 이후 계단위는 비구 비구니계 수계를 마친 오전 11시 비구 비구니 합동으로 보살계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구 계를 수계한 비구 비구니 18인은 선학원 승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 전법도생에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회향식은 낮 12시 10분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으로 시작됐다. 전계사 철오 스님은 회향식 법문을 통해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나가 세간의 사표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계법 숭의 모범을 우리 선학원 승가들이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밝게 비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기 2559년도 선학원 승적부에 첫 등재된 수계증을 수여받은 수계자들은 사홍서원을 끝으로 회향식을 마쳤다.

신성민 기자

선학원은 4월 27~28일 부산 금정사에서 독자적인 구제계 수계산림을 열고 18명의 스님들을 배출했다.

조계종 신임 불학연구소장 수경 스님

현응 스님, 27일 임명장 수여… 비구니 스님으로 최초

"교육 불사 안정에 최선"

첫 비구니 불학연구소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수경 스님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자세로 교육 행정에 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계 교육원 산하 불학연구소 신임 소장에 수경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비구니 스님이 교육원 부장급 교역직 인사인 불학연구소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4월 27일 집무실에서 신임 불학연구소장 수경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현응 스님은 "불학연구소장에 비구니 스님이 임명된 것은 단적으로 처음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며 "불학연구소는 단 교육 정책의 싱크탱크와 같은 곳. 새로 임명된 스님께서 단 교육불사 안정에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명식 직후 신임 불학연구소장 수경 스님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 제2기 교육 불사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한편, 첫 비구니 불학연구소장 수경 스님은 1980년 법일 스님을 은사로 수계(사미계)를 받고 삼선승가대학을 업했다. 동국대학교 선학과 박사과정을 취득하고 동국대 및 삼선승가대학 등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2007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무원 문화부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 동국대 일반대학원 선학과 강사, 삼선불학승가대학원 교수로 후학양성을 위해 정진하고 계시며, 단 고시위원회 위원이다.

신성민 기자

승가청규 제정 등 쇄신의제 완성 추제

자승 스님, '종단 불신해소' 100인 대중공사서 밝혀

"자성과 쇄신 결사를 통해 도출된 단 쇄신 4대 의제 10대 과제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29일 '단 불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단쇄신위원회가 제시했던 4대 의제 10대 과제 시행에 중점을 둘 것을 천명했다. 단 불신의 해소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자승 스님은 합토론의 마무리 발언에서 "2012년 백양사 사건 이후 자성과 쇄신을 위해 단 쇄신위원회가 구성됐고 단 행정, 입법, 문화를 일신하기 위한 4대 의제 10대 과제를 성안했다"면서 "하지만 당시의 절박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유여하를 떠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4대 의제 10대 과제는 변화를 바라는 도들의 신념이 담긴 것"이라며 "승가청규 제정을 필두로 쇄신 과제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6월까지 활동한 단쇄신위원회가 성안한 4대 의제 10대 과제는 △승가청규 △ 단 무 쇄신 △승가복지제도 △선거제도 등 단 전반 문화의 변화를 위해 만들어 다.

승가청규는 불교 사회참여 등에 대한 실천 분야를 중시하고 일상 위의에 대한 바라이제 목차를 통한 제한 분야를 병행하는 형식으로 정해 다. 또한 수행의 장, 생명의 장, 평화의 장, 나눔의 장, 문화의 장으로 각 분야 수행지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10대 과제에는 3원 체재 개편, 문화부원장 신설 등 무쇄신안과 법계직무제도 안착, 호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승 스님은 "지난 27일 재정 투명화를 위해 재정 공개를 발표하면서 사회 지지를 이끌어냈다. 대중공사를 통한 소중한 결실이다"고 평가하며 "이 같이 공론을 모아낸다면 단 쇄신을 이끌 수 있다"고 강 했다.

이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단에 대한 자 감을 가진다면 자성과 쇄신을 이뤄

쇄신 동력 저하에 책임 통감

"종단 신뢰 회복위해서는
출재가 도덕·규범 준수 중요"

단은 거듭날 수 있다.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단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1~10모둠은 그간 자신들이 논의한 결과물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모둠들은 3시간여의 토론을 통해 단불신의 원인으로는 △승가공동체 내 경제적 불평등 △선거제도의 부작용 △인사의 불공정성 △사법기능 약화 △복지제도 미비 △사회참여부 등을 꼽았다.

실제 5모둠에 참석한 양한웅 계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 계 의 권력 구는 한국 자본주의 모순을 그대로 닮아 있다. 5%의 스님만이 권력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불신 원인은 스님에게 8할, 이중 지도부에 7할이 있다"면서 "기 제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상벌제도가 미비해 재정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며, 불공정한 양형으로 사법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선거 제도 개선을 비롯해 승가교육 혁신, 승려복지제도 안착, 홍보제도 개선, 신도 참여, 무분별한 폭로 행위 지양 등을 불신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국불교는 신뢰부재 상태"

오전에 이뤄진 단 불신의 원인에 대한 브리핑에서 발제자로 나선 성택 고려대 교수는 한국불교는 불신보다 신뢰 부재 상태가 더 깊게 보여지고 있음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교수는 불신과 신뢰 부재는 구별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불신은 주로 교 내부의 문제지만 신뢰 부재는 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 문제라는 게 교수의 설명이다.

불신의 문제에 대해서 교수는 "스님 혹은 재가활동가 등 개인의 비윤리적, 비불교적 행태가 단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불교계 내에서 단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출재가자들의 도덕적 자질과 불교적 규범의 준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뢰의 부재에 대해서는 불교에 대한 사회적 지도력의 상실이 기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수는 "설문 사에서 선방 수좌 스님들의 신뢰가 높다고 집계된 것은 불교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불교적 정체성에 입각한 사회 참여와 담론 선도가 필요하다"고 강 했다.

이어 " 교의 신뢰는 권위와 직결된다. 하지만 권위가 사라질 때 권위주의가 등장한다"면서 "부처님, 출가수행자, 불교의 권위는 실천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계제은 4월 29일 서울 불광사에서 '제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4차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총무원장 직선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사"

사부대중 연대회의, 27일 공청회… 직선제 당위성 논의

계 총무원장 선거의 직선제로의 전환을 위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 연대회의는 4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계 중앙 회의원 장명 스님(삼화도량 책위원장)은 '바람직한 총무원장 직선제 방안' 제하의 발제를 통해 현재까지 제시된 직선제 방안을 점검했다.

스님은 2009년 설문 사의 토대로 직선제 실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와 불교신문이 공동으로 진행한 2009년 설문 사에 따르면 승가 전통의 입장에서 37.7%가 직선제를 찬성했으며,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40.4%가 직선제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추대제는 권력 독점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56.5%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부정의 응답은 16.9%에 그쳤다.

이런 설문 사 결과에 대해 장명 스님은 " 도들은 직선제가 대중공의에 의한 단 운영이라고 하는 대중공사 전통과 개혁 정신에 부합하고 부정선거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1994년 단 개혁 이후 헌· 법이 세속의 삼권분립에 입각해 제개정된 것을 감안한다면 단의 현실에서 가장 바람직한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직선제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명 스님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선제 방안을 분석·점검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선제 방안으로는 △승랍 20년 이상 모든 승려에게 선거권을 주는 안 △승랍 10년 이상 모든 승려에게 선거권을 주는 안 △비구 중덕(승랍 10년), 비구니 혜덕(승랍 20년)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안 등이다.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 연대회의는 4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장명 스님은 "세 가지 직선제 방안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설문 사와 공청회를 통해 도들의 바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선거공영제의 실시 △선거관련 사범에 대한 징계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주적 역할 강화 △당선 무효 심판 제도의 신설 등의 논의도 단 차원에서 활성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규 변호사(참여불교 재가연대 공동대표, 교단자정센터 원장)가 ' 단 개혁 21주년 왜 직선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또한 토론자로는 설법연구원장 동출 스님, 문수암 주지 이암 스님, 전국푸른수행자회 운영위원 부명 스님, 김영국 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명칭변경 공고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이하 전사련")는 지난 4월 21일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통해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로 법인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인명칭 및 사업변경에 따른 전국지부법인종단 단체등록증, 대표자임명장, 지부법인설립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을 오는 5월 1일부터 재교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1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제단연합회
총재 장각성 / 회장 무산 / 전국지부법인종단관리위원장 무공 / 대외협력위원장 성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909호(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2198-5022~4 FAX : 02-2198-5025
http://kntga.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특허출연 결정서 공고

◆ 특허출원인 성명 :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출연인코드 120140041538)
◆ 법인설립허가일 : 제2012-43호(2012. 4. 9.)
◆ 법인등기부등록번호 : 110321-0039311
◆ 법인등기번호 : 003931

◆ 법인사업의 목적 및 종류
※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특허출연결정과 관련하여 종단 전국종도에게 다음사항을 고지합니다.

❶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특허출연 결정 신문공고 이후 법인본점 승인절차 없이 사찰등록증, 임명장, 승려증, 세무서 고유번호증 등 각종 종단등록 서식에 법인명칭을 무단사용하는 행위는 관계법령 상표법 침해행위로 간주되오니 종단 전국사암 종도 및 사부대중께서는 재등록 분한 신고를 신속히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5월 1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제계제 총무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909호(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2198-5022~4 / FAX : 02)2198-5025

무엇이 진정한 믿음과 지혜의 삶인가?
길을 찾아 속시원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마음의 묘한 깨달음은 마음의 길(心路)이 끊어진 바로 그곳에 있다"고 어떤 선사는 말씀하셨고 불교의 믿음은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든 생각과 생각이 다한 곳을 말합니다.

불교인들은 "인간의 궁극적 이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마음을 깨친 해달의 세계를 말하고, 유교인들은 마음에 거짓이 없는 인(仁)의 세계를, 도교인들은 말이 필요없는 도(道)의 진리를,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충만한 애(愛)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인생과 대자연의 세계는 은현 변화하는 신묘한 신명의 세계 실상에서 실로 미묘막측한 현지우현(玄之友玄)의 기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깨달음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여 더 생각하는 길이 없을 때 그곳이 곧 생각이 끊어진 삶이요, 그것이 곧 자유의 삶이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 하지만 진실로 골깊은 아픔을 안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우리 중생은 신명세계의 현묘한 조화에서 유서 깊은 속시원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有)의 형(形)만을 견(見)하는 시점을 초월하여 무(無)와 신(神)을 투시하고 관(觀)할 줄 아는 총명력을 길러 나가야 현명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참 지혜인 "무(無)와 신(神)을 관찰 할 줄 아는 예지의 양성이 오늘날 더욱 절실해 지고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무(無)와 상(象)이라고 보고 육체를 유(有)와 형(形)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정(精)과 신(神)이 합한 것이며, 이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신명세계의 살아있는 무궁한 조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천일기도를 회향하고 무상보리의 경지에서 천지조화의 천문을 열고 상담하는 현무궁 신모 금당 선생을 만나면 업장소멸의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불가사의한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십시요!

금당 선생을 만나는 순간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현무궁 신모 금당
꼭! 사전예약 H.P 010-3629-7373 / TEL 02)2198-5023~4
■오전 : 10시부터 ~ 17시까지 종로사무실(두산위브파빌리온 909호)
■오후 : 18시부터 ~ 20시까지 대치동 현무궁